

부작용이 적은 새로운 췌장암 치료용 항체 개발

항체치료제연구센터
고상석 2008.10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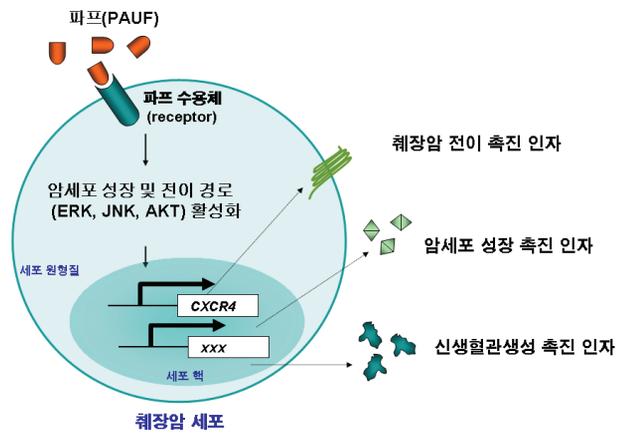
연구개요 · 파프 단백질에만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완전 인간 단일클론 파프 항체를 개발하였고, 생쥐를 대상으로 한 항암효과 측정실험에서 췌장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것을 확인함.

개발내용 · 췌장암과 관련된 파프(PAUF) 단백질의 발암성을 규명하고 이 단백질을 표적으로 치료용 항체를 개발하여, 생쥐를 대상으로 한 항암효과 측정 실험에서 췌장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함.

· 췌장암은 초기 진단이 어렵고 전이율이 높으며 사망률이 매우 높은 치명적인 암으로 알려져 있음. 하지만 항체는 표적에 대한 특이성(specificity)이 높아 종래의 화학치료법보다 부작용이 적음. 따라서 파프 항체가 암 표적 치료제로 상용화될 경우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로 인한 높은 경제적 이윤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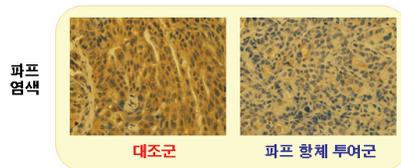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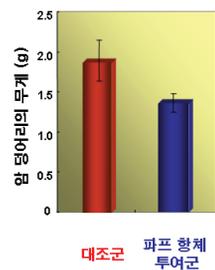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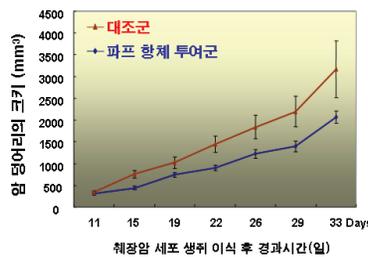
활용사례 / 효과

- 2008년 기술이전 35억원 (3건)
- 항-PAUF 인간항체(췌장암)
 - (주)렉스바이오 (10억원)
- 항-VEGFR2 인간항체(고형암)
 - (주)파맵신 (20억원)
- 항-VCAM-1 인간항체(관절염, 천식)
 - (주)한화 (5억원)



파프는 암의 진행 및 전이 능력을 촉진

파프의 기능을 막는 파프 항체는 암의 진행 및 전이를 차단.



파프 항체의 항암 효과

생쥐에 췌장암세포를 이식한 후 파프 항체를 투여한 생쥐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암 세포의 증식이 억제됨.